

일본, 바이오기술 전략회의 설치

일본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회의](의장 고이즈미 총리)를 2002년 7월 설치할 예정이다.

신약 개발연구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검토, 승인·심사의 신속화 및 민간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바이오산업이 의약에서부터 화학, IT까지 여러 업종에 걸쳐 있어 성청 행정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략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식품 안전행정 독립위원회 설치도 결정했다.

2003년 여름까지 200-300명 규모로 발족,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 필요한 규제를 관계 성청에 권고하게 된다. 광우병 문제 등 식품행정의 신뢰회복이 목표이다. 대신, 농수성 식량청은 폐지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6/ 21>